

[글 1]

## 이용자들이 도서관과 사서들에게 바라는 점

임세숙(성균관대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재학)

〈이야기 하나 - 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대학교에 막 입학한 철학과 신입생 진하는 학교 이곳 저곳을 살피며 다니는데, 평소에 책에 관심이 남보다는 많았던지라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도서관이었다. 평소 동네 문고만 이용하던 진하는 큰 도서관이 처음이었고, 또 낯선 곳이라 어쩔 줄을 몰랐다. 어디를 가서 어떤 책을 봐야 하는 지를 알 수가 없었다. 도서관 입구에는 검색을 위한 컴퓨터가 몇 대 있었지만 특별한 책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니기에 우선은 전공에 관련이 있는 책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입구에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저 철학 책은 어디에 있지요?” 진하의 질문에 통명스레 고개를 들고는 “저쪽에 분류기호표 안 보여요? 거기서 찾아보세요”라며 벽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분류기호표, 그것이 뭐지’ 진하는 직원이 가리키던 쪽으로 가서 거기에 걸려있는 분류기호표를 보았다.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 과학 400 순수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어학 800 문학 900 역사 ‘아, 이것이 분류기호표구나. 철학은 100, 3층이구나’ 3층으로 올라간 진하는 여기 저기 책을 보았다.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들보다는 많은 낯선 책들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날은 그렇게 도서관 문을 나섰다.

며칠 후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다. 어떠한 책들을 읽고 어떠한 주제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대안점을 마련하라는... 다시 도서관을 찾은 진하. 곧바로 검색 컴퓨터에 앉았다. 그리고는 교수님께서 내주신 책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없는 책도 있었지만 두가지의 책은 도서관에 있었다. 청구기호를 노트에 적고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갔다. 342.20, 342.21, 342.23, 543.65 ... 진하가 찾으려 했던 책은 342.22였다. 컴퓨터 상의 기록으로는 대출된 기록도 없는데, 책이 없었다. 그리고 난데 없는 543.65라는 책이 끼어 있었다. ‘혹시 내가 찾는 책도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있는 것 아냐?’ 그 책은 조금 있다가 찾기로 하고 또 하나의 책을 찾았다. 그 책은 바로 청구번호대로 있었고 찾는 데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책이 너무 낡고 해졌으며, 중간 중간에 없는 페이지도 있었다. 직원에게 말을 해볼까 생각을 했다가 며칠전의 그 통명스런 표정이 떠올라 그냥 도서관을 나왔다. 그리고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찾았다.

## 〈이야기 들 - 공공도서관에서〉

등하교시 진하가 타는 버스는 xx구 공공도서관을 지나는데, 버스 방송에서 xx평생학습관이 라고 하여 처음에는 도서관인지를 몰랐던 진하는 얼마 전이야 평생학습관이 공공도서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지 못하여 난감했지만, 곧 이 공공도서관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도서 검색을 한 결과, 분명히 철학 책인데, (물론 제목에 문학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 있기는 하지만) 문학류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래도 책이 있다는 것에 얼른 책을 뽑아서 도서 대출대에 가지고 갔다. 하지만 대출을 할 수는 없었다. 회원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고 회원증을 발부받으려면 증명사진이 있어야 했다. 얼마전 학교에 입학 하면서 찍은 증명사진 몇 장을 책가방에 가지고 다녔지만, 오늘은 가방을 바꾸어 메고 온 탓에 증명사진은 없었다.

주민등록증만으로는 안되냐는 진하의 말에 공공도서관 직원아저씨는 짜증이 난 표정으로 손가락을 펴서 저어 보였다. 안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원의 “안됩니다”라는 대답도 아닌 손가락으로의 대답에 진하는 기분이 상했다.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을 때 옆을 보니 복사기가 있었다. 일반 복사기는 없었고, 카드 복사기만 있었다. 진하는 얼른 매점에 가서 복사카드를 사 가지고 왔고 복사기 앞에서 차를 기다렸다.

옆 복사기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4명이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을 본 진하는 저 어린 나이에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고 복사를 한다는 것에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하면서 부러웠다. 이런 공공도서관

을 찾은 것이 진하는 오늘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복사기가 서툴렀는지 계속 뜻한 바와는 다르게 복사가 되어 나왔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약간 웅성웅성되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그 아이들을 좋지 않은 눈초리로 보던 직원 한 분이 그 아이들을 막 혼내기 시작했다. 시끄럽다고. 한번만 그래도 될 것을, 계속 혼을 내었다.

그 아이들이 떠들고 싶어서 떠드는 것이 아님에도 그 직원은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들을 나무랐다.

기가 죽어서 복사를 끝내자 마자 후다닥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진하는 펜스레 화가 났다.

그 아이들이 다음 번에도 자신이 보고 싶고 찾고 싶은 책이 있어 이곳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차례가 되어 책 한 권을 다 복사를 하고 있던 자리에 가서 책을 꽂아 놓은 후 도서관을 나왔다. 도서관에서의 불편했던 마음이 도서관문을 나오니 조금은 홀가분해졌다.

다시 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을까? 복사카드도 금액이 남긴 남았지만... 별로 찾고 싶지 않은데... 버스를 타고 지날 때마다, 방송에서 xx평생학습관이라고 나올 때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겪고 느낀 일들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상에서 본 것을 검토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직원에게 바라는 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친절했으면

2. 책이 제 자리에 꽂혀 있기를
3. 책 분류를 제대로 했으면
4. 도서관 직원이라면 분류기호를 알고 있기를
5. 책 점검을 하여서 낡은 장서는 새 책으로 교환되기를, 라벨이 떨어진 책은 바로 보수하기를
6. 어린이 공간을 마련했으면
7.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이 되었으면

이번 과제를 받고 참 난감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과제일 수도 있지만 지극히 나에게서는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나는 도서관을 내 몸으로 부딪히며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학교 4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직원에게 물어 본 일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은 내가 다 알아서 도서관을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어보기가 어색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못 찾으면 바로 서점에서 책을 사곤 했기 때문(대부분의 보고 싶었던 책은 사서 보았기 때문)에 도서관을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보지를 못했던 것이다. 기껏해야 내가 살 필요를 못 느끼는 책을 보는 곳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을 물어 보았다. 그리고 나 또한 몸으로 부딪히며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느낀 것들이 친구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지적한 것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1) 친절했으면 과 2)책이 제자리에 꽂혀 있기를 이다.

도서관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여 물어 보기가 겁나고 물어 본다고 해도 원하는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4)항과도 연관이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의 직원은 사서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분류기호도 모르는 직원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분류기호도 모르는데, 어찌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할 수가 있겠는가. 최소한 직원들이 잘 모른다고 해도 친절하기만 한다면 이용자들이 그리 큰불만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든다.

책이 제자리에 꽂혀 있지 않았던 것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책을 뽑아서 보고 아무 자리나 꽂아 둔 이용자들의 잘못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것을 도서관의 잘못된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다. 뽑아서 본 책은 반드시 이동서가 테이블에 놓게끔 하는 도서관도 그것을 제대로 표시해놓지 못하고 있고, 이동서가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에게 본 책은 제자리에 꽂아 놓게끔 표시를 해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아무리 이용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당부한다고 해도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나름대로 도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기 전에 한번씩 서가를 둘러보아 전혀 엉뚱하게 꽂혀 있는 책이 없게끔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검색 시에는 분명히 있다고 나오는데, 막상 책을 찾았을 때 없는 그런 황당함은 없어야 하겠다. 이것은 최소한의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과제가 아닐까.

사서교육원에 다닌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왜 책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은 반드시 각과의 조교들과 같이 책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말하곤 한다. 그쪽을 전공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아는 전공 서적인 경우에도 전혀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한다.

사서 혼자서 모든 학문을 섭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일 경우에 이러한 실수(?)는 도서관의 위엄을 실추시키기 딱 알맞은 것이라 하겠다. 대학도서관일 경우 질문한 그들이 말한 대로 각과의 조교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분류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류를 한 후에 그들에게 한 번 씩 점검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고 사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분류기호 표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다. 옛날에는 그러한 것에 별 생각 없이 지나치곤 했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확연히 잘못된 것이다. 하다 못해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손님들에게 하는 인사부터 배우고, 그곳의 메뉴는 달달 외우지 않는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는 도서관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사서가 되고 싶어서 사서교육원에 다닌다고 할 때 어떤 이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또 따로 배워야 하는 거냐고 되묻는다. 그러면서 정말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거나 한 것인지도 물어 보곤 한다.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직원이 어떻게 보였으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너무 낡은 장서, 보기 힘들고 몇몇의 페이지는 아예 없는 장서가 도서관에 그리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든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폐기해야 할 장서를 장서 수 확보 때문에 폐기를 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장서의 존재의미를 생각하여 본다면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만약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러하다면, 도서관 안에 어떤 함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보기에 너

무 낡아서 도저히 보기가 어려운 장서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함에 넣도록 하여, 나중에 도서관 직원들이 그 책을 점검하여 새 책으로 바꾸거나 보완하여 다시 서가에 꽂힐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라벨이 떨어진 책도 1년에 1번 도서관들이 주기적으로 책 점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렇게 함을 만들어 놓아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앞의 공공도서관에서의 일은 내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이다. 도서관 직원들의 불친절도 기분을 언짢게 했지만 여직원이 어린이들에게 소리치며 혼내는 것은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문화시설이 극히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도서관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것도 있고 문화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탓이기도 한 것 같다. 나의 경우를 보면 도서관 가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던 것 같다. 익숙하기까지가, 편하게 도서관을 찾는 데는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어린이들은 어른보다도 익숙하기가 더 낫설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먼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에 익숙하게 하기보다는 어른들의 잣대로,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에 방해된다는 식으로 어린이들을 도서관에서 내모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 볼 때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그때의 우리보다는 도서관의 벽이 그리 높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아직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도서관에서,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는 중요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아직 우

리나라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에서라도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도서관 직원들이 친절함으로 그 부족한 시설을 메워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들 중의 몇은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 누구나 갈 때마다 느끼는 문제일 테지만 너무 교통이 불편하여 한 번 갈 때마다 작정을 하고 가야 한다. 대학교 내에서 도서관의 위치는 정 중앙이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그러한가.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정말 1년에 한 번 가기가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구마다 가까운 곳에 구민들이 제일 편하게 느끼는 곳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누구나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하면 더욱 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늘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도서관 봉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도서관에서의 시설 확충이나, 도서관직원의 업무에 관한 지식에 대한 불만은 부차적인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바로 도서관 직원의 밝은 표정과 다가갈 수 있는 태도, 친절함이다. 그것들이 바로 도서관직원들과 도서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어린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를 불문한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도서관, 열린 도서관이 되었으면...



[글 2]

## 도서관에 대한 나의 생각들

윤권일(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3학년)

이제 벌써 문헌정보학과 3학년이다. 지금 나에게 가장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부분은 나의 미래이다. 이것은 바로, 도서관과 관련 짓고 살아가야 할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 당당히 말하건데, 우리 도서관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가야 할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나의 미래를 바꿔 나가는 첫걸음임을 자신한다.

지난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유럽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어렵게 만들어낸 기회라 그런지 무엇보다 그냥 소홀히 넘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바로 그곳의 도서관이나 박물관 문화였다. 유럽의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빼놓지 않고 다닌 곳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었다. 『오마이뉴스의 <미국사는 이야기>』를 읽고나니, 그때

내가 유럽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새록 새록 기억이 났다. 각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이곳 저곳의 정보를 얻을 때 빼놓지 않고 물어보았던 도서관 위치, 지도를 받자마자 우선 도서관의 수에서부터 놀랐던 일. 학교 도서관을 비롯해 여기저기 쉽게,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은 외국인인 나로서도 불편없이 다갈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의 시설이나 모습들부터가 우리와는 뭔가 달랐다. 놀라움과 경탄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말 짧은 영어지만, 도움을 청하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사서분들이 지금껏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있었던 일이다. 작은 마을이지만 이곳에도 공공도서관이 있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도서관인지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 아담한 이 도서관을 찾은 날, 나는 그곳에서 잊지 못할 사서 한 분을 만났다. 외국인이어서 난 물론 그곳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렇지만 국제 학생증만으로 그곳을 견학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 들어가 낯설어 하는 나를, 친절하게 견학시켜 주었던 일. 내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니, 꽤 나이든 그분은 친구처럼 정말 편안하게, 이런 저런 도서관에 관한 얘기를 나눌 기회도 주었다. 영어가 짧아, 많은 부분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분명하게 느낀 점은 부러울 정도로 당당하게 자신들의 도서관을 자랑하는 그분의 모습이었다. 사서로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지금껏 살아오신 그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 나라의 사서분들도 그렇게 우리의 도서관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나로서도, 여기 저기 많은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도서관 현실의 낙후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낀터라 그분에게는 우리의 도서관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4시간 가량 그곳에서 그분의 시간을 빼앗는 동안 보았던 남녀노소 여러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는 모습, 사서 할머니님과 이용자가 서로 교감하는 모습, 작은 마을이지만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시설과 장서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수업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 보다 훨씬 새롭게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다. 그 중에서도 사서분들의 친절함은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아마도 도서관이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라켄에서 만났던 사서분과 같은 분들의 능력과 태도가 한 몫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 더불어, 그네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다.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은 도서관을 사회발전이나 정보의 공유라는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반의 생각들이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유럽의 도서관이 우리들의 도서관보다 발전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발전된 부분들을 보고 느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의 도서관은 어떠한가? 『주간 조선』 3월 9일자에는 우리 도서관의 현실들을 얘기하고 있다. 도서관에 시험 공부하러 오는 모습, 멀게만 느껴지는 도서관, 컴퓨터 몇 대 들여놓으면 도서관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 정부, 도서관의 부족한 장서량, 도서관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한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현재 우리 도서관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요구된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내가 느꼈던 부분들을 후배들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책가방 속에 문제집 몇 권 들고 찾아가던 시립도서관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주말이면 언제나 찾아갔었던 시립도서관의 열람실은 언제나 열려있었지만 다른 시설은 전혀 열려있지 않았던 것이 생각난다. 대학에 들어와서 느끼는 도서관의 모습도 그 때의 모습과 별반 달라진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서관이 얼마나 좋으나에 대한 기준이 정보의 질이나 양이 아니라, 열람석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내가 다녀본 유럽의 도서관에서는 도통 우리 나라와 같은 열람실은 본 적이 없다.

앞과 옆이 꽉막힌 책상을 이야기하면 유럽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프랑스의 도서관에서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우리 나라만큼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책이나 잡지를 통해 얻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에 우리보다 낙후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듯 도서관의 가치는 컴퓨터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열람석이 얼마나 있는지가 척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얼마나 고객·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해결의 접근은 우리 사서의 역할에서부터 문제제

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앞서 스위스 인터라켄 도서관을 이야기할 때 말했지만, 도서관을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다.

바로 사서들이 이 문제들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비단, 랑가나단의 법칙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법칙을 모르는 사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에 잘 옮기지는 못하는 것 같다. 사서들의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서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많은 부분 바뀔 수 있음을 유럽에서 다녀와 느꼈다.

유럽을 다녀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나라 밖이 너무 좋다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내 나라에서 바로 세계의 좋았던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도 더불어 들었다. 여기 저기 유럽의 도서관을 다니며, 도서관의 고객·이용자가 정말 도서관을 사랑하는 것같이 부럽기도 많이 했지만, 도서관이 사람들로 부터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